

#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으로 우수 외국인 유치 나선다

### 지역우수인재는 확대·지역특화동포는 인원 제한 없애 9월 20일까지...가족 초청·배우자 취업 등 다양한 특례

전남도가 9월 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모집에 나선다. 성실하고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해 특례를 제공,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집 인원을 전년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모집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특화 동포로 나뉜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

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 특화 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 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전남에선 영암, 해남, 고흥, 장흥, 곡성, 보성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우수 인재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425명을 모집한다. 지역별 배정 인원은 영암 250명, 해남 60명, 고흥 35명, 장흥 30명, 곡성 20명, 보성 30명이다. 지역 특화 동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바라는 외국인은 사업 지

역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취업 허용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외국인에게는 가족 초청, 배우자 취업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지역 우수 인재(F-2-R) 비자 전환 시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다. 또 지역 특화 동포(F-4-R) 비자의 경우 일반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되며, 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있다. 특히 두 비자 모두 초청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역 정착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가칭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자 일자리 매칭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방위 장비 점검 1일 오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 비축물자창고에서 민방위팀 직원들이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화생방, 방독면, 응급세트 등 민방위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첨단전략·청정에너지·문화콘텐츠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 전남테크노파크와 131만평 신청 27개 앵커기업과 19조 투자협약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서부권에 첨단전략, 동부권에 청정에너지, 양 권역을 연계해 문화콘텐츠 등 3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모두 131만평의 면적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1일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기 위해 전남도 구성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후

후보지 입지, 수요기업, 산업 현황 및 정주여건 등에 관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최종 3개 지구에 6개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27개 앵커기업과 19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된 6개 산업은 해상풍력(목포·해남 16만평, 2개사), 반도체 및 항공정비(무안 9만평, 8개사), 데이터센터(해남 20만평, SPC), 광양만권 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 47만평, 8개사), 수소산업 클러스터(여수 34만평 5개사), 문화콘텐츠(순천 5만평 3개사)로 권역별 에너지원, 산업(생산), 물류를 연결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3개 지구를 구성했다.

서부권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생산 및 데이터센터를 육성하여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수출하고, 동부권은 수소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 광양항을 통해 수출한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주도, 양 지역을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기회발전특구 정보시스템'(JEAIS)을 구축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유치기업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예산안 의결 논란

###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지적 시 산하기관들, 수당 규정 제각각

(재)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올해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3개월 동안 집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 일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자기관 등도 정기이사회를 '서면 심의'로만 개최하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19개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을 비롯한 (재)광주문화재단, (재)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등 절반이 넘는 기관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참석해 의결한 안건은 사실상 무효인 셈이라는 것이 특별전문위원실의 해석이다.

일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들도 단일한 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각 기관의 정기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 기관 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

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 심의'로 개최해 예산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문화재단은 셈이 맞지 않는 본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들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채 1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했다. 19개 기관의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데다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실도 이번 검토에서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의 산출 규정과 산출 근거가 주목구구식으로 편성됐는데도,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 조례에 따라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출연금을 정산한 뒤 광주시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 재단,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이 101억81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김해나 기자 khn@

## 광주 첨단산단 근로자도 '반값 아침'

### 광주TP에 조식지원센터 개소 김밥·샐러드 등 100인분 판매

광주 첨단 산업단지 근로자도 '반값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첨단 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 한끼' 2호점을 열었다. '간편한 아침 한끼' 첨단산단점은 광산지역지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매주 월·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김밥, 컵밥, 샐러드 등으로 메뉴를 다양화하고, 하루 100명분의 아침 식사를 판매한다.

특히 구매할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당일 영업은 조기 종료한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사업'(간편한 아침 한끼)은 시중가격 50% 수준의 저렴한 가격(2000~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27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을 연 하남산단점은 같은 해 12월 말까지 1만 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이 매일 준비한 물량이 완판될 정도로 반응이 좋아 2호점을 개소했다"며 "지역 모든 산단에 조식 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